

# 해남 현산남초, '고천암자연생태공원' 자전거 체험학습 실시

### 농산어촌 유학학생과 함께 '해남 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 운영 '해남군의 습지' 자전거를 이용해 돌아보고, 계절의 정취 만끽

해남 현산남초등학교는 지난 22일 해남군 황산면에 위치한 '고천암 자연생태공원'으로 자전거 체험학습을 다녀왔다.

현재 현산남초등학교는 2학년 1명, 4학년 1명, 5학년 3명, 6학년 3명으로 총 8명이 재학 중이다. 다행하게도 해남교육지원청 역점과제인 '해남 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으로 서울에서 유학하러 온 3명의 학생(2학년, 4학년, 5학년) 덕분에 작은 학교에도 활기가 넘친다. 특히 작은 학교의 특성을 살려 학생 중심의 민주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제 중심의 학년 교육과정 및 학교의 행사, 아침 활동과 중간 놀이 시간 활동까지 모두 한 달에 한 번 이상 이루어지는 전교생 다모임을 통해 정하고 운영하고 있다. 매일 이루어지는 아침 활동 역시 다모임을 통해서 정해졌고 금요일은 자전거를 타고 학교 주변을 돌며 운동을 하고 있다.

9월에는 매주 열심히 연습한 자전거를 타

고 체험학습을 가기로 했고 다모임을 통해 장소가 결정되었다. 이번 체험학습은 농산어촌 유학을 온 서울 친구들 3명에게 우리 지역 해남의 아름다운 자연과 들녘, 습지를 소개해주는 차원으로 추진되었다.

고천암 자연생태공원은 자연 맛이 광장, 철새 숲대 화랑, 나들이 뜰, 안뜰 광장의 바닥분수, 수향 습지원, 새소리 숲, 들꽃 향기원, 새맛이 광장 등의 시설물을 갖춘 곳으로,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자연을 벗 삼아 걷는 즐거움이 가득한 곳이다.

해남 고천암은 본래 철새 도래지로 유명하여 해남을 찾는 철새들의 조형물과 고천암호에 출현하는 조류를 테마로 한 철새 숲대 화랑 등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관람할 수 있다. 특히 여름에 운영하는 안뜰 광장의 바닥분수와 놀이터는 어린이들이 뛰어놀기에 안성맞춤이며 가을에 담수호를 배경으로 찍는 사진은 인생 사진으로 남을 것이다. 도심

을 떠나 녹지 속에서 산책과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이번 체험학습으로 파스한 가을 햇살 아래 노랗게 여물어 가는 벼가 가득한 논과 철새들도 사랑하는 해남군의 습지를 자전거를 타며 돌아보고, 계절의 정취를 만끽했다.

현산남초등학교에 1학년년부터 입학해 다닌 정현우 학생(5학년)은 "자전거를 매주 타니 운동이 되고 자전거를 탈 때 바람이 시원해 기분이 좋았다. 서울에서 유학하러 온 친구들에게 우리 지역의 습지를 소개하고 함께 여행하니 더 즐거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에서 농산어촌유학을 온 오재은 학생(5학년)은 "매주 자전거를 타니 체력이 늘고 건강해진 느낌이다. 해남으로 유학을 와서 서울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다양한 것을 해보아 의미가 있다. 고천암 자연 생태 공원에서 친구들과 노래를 부르며 자전거를 타고 돌아보고 공원 놀이터에서 함께 뛰어노니 재



미있었다."라고 했다.

조미정 교장(현산남초등학교)은 "비록 작은 학교이지만 학생들이 더욱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특히 해남교육 기본

방향인 교육 때문에 머물고, 교육 때문에 찾아오는 해남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 순천교육청, 유·초·중·고·특수교(원)감 회의

순천교육지원청은 지난 19일 오후 2시 전남도립미술관 대강의실에서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감 86명을 대상으로 「미래역량 중심 교육력 제고를 위한 2023. 9월 교(원)감 회의」를 실시했다.

이번 회의는 2023.9.1자 인사발령에 따라 전 입 및 승진한 교(원)감 소개와 교육지원청 간부 및 직원 소개, 각 과별 하반기 주요업무안 내, 질의응답, 그리고 전남도립미술관에서 전시 중인 《이건희컬렉션 한국근현대미술 특별전: 조우》를 관람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하반기 순천교육 주요업무안내 시간에는 지난 8월(금) 있었던 9월 교(원)장 회의에 이어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순천영재교육원 학급당 정원 조정, 대학수학능력시험 추진, 고등학교 입학 전형 안내, 중학교 남녀공학 체

제 개편 추진 현황, 위기학생 관리 강화에 대해 다시한번 안내와 당부의 말을 전하며,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회의가 끝난 후 이루어진 미술관 관람에서는 이견희컬렉션뿐만 아니라 미술관의 다른 전시장도 찾아 관람하는 등, 교(원)감 선생님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임종윤 교육장은 "2학기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 및 공부하는 학교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교(원)감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할 때이며, 특히 교권과 학습권이 조화로운 때 공부하는 학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간관리자로서 교(원)감 선생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하면서, 교육지원청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순천=김승호기자

## 목포정명여고, 인도네시아 샬롬신학교 비전트립팀과 교류

### 기독교 정신 바탕으로 세계와 하나되는 문화, 인성 교육의 장 마련



목포정명여자고등학교는 지난 18일 인도네시아 샬롬신학교 비전트립팀과 교류하며 뜻깊은 만남을 기념했다.

인도네시아 샬롬신학교 비전트립팀은 양동제일교회 파송선교사인 이준모 선교사와 인도네시아 샬롬신학교 132명 중 선발된 19명의 신학생이 모인 기독교 지도자 훈련 모임이다.

인도네시아 람퐁에서 먼길을 찾아온 이들은 1909년 9월 14일, 미국 남장로교 한국선교회 유진 벨(한국명 배유지) 선교사가 설립한 광주·전남 최초의 여학교인 목포정명여자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해당교의 설립 이념인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나누고 찬양하는 합동 예배에 참여하였다. 이날 설교자로 사역한 이준모 선교사는 설교에서 '목포정명여자고등학교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기도한다.'며 감사 인사를 건넸다. 또한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세계시민의식의 필요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사명감을 강조하며, 지역 교육의 발전과 학업 증진에 힘쓰는 목포정명여자고등학교의 앞날을 축복했다.

목포정명여자고등학교는 인도네시아 샬롬신학교 비전트립팀과의 만남에서 기독교 학교로서의 부침의 역사를 공유하고, 선진화된 학교 교육과정 하의 다양한 교과목이 어떤 위계질서를 갖고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지 소

개했다. 특히 학교 교육 현장에서 종교 교육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과정과 실재를 배우는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기독교 지도자를 준비하는 비전트립팀에게 귀감을 보였다.

또한 인도네시아 샬롬신학교 비전트립팀은 목포정명여자고등학교의 AI 교실인 아이아스(AIAS)실 등을 돌아보며 수업을 참관하고, 에듀테크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 활동을 체험하며 미래 교육의 방향과 방법을 고민하였다. 이어진 종교 수업도 참관하여 학생들과 호흡하고 믿음, 소망, 사랑의 가치 아래 세계 문화를 교류하는 데 앞장서기도 했다.

이에 목포정명여자고등학교 2학년 박○○ 학생을 비롯하여 수업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인도네시아라는 생소한 나라에 대해 가깝게 느끼는 계기가 됐고, 추구하는 공동의 가치 아래 세계가 하나됨을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목포정명여자고등학교 고철수 교장은 인도네시아 비전트립팀을 맞아 오늘의 교류가 상호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거라 기대하며 기술,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더욱 강조되는 인문학적 소양을 기독교 정신으로 배양하는 기회의 토대로 삼겠다고 밝혔다.

목포=기동취재본부

## 서버구축 및 운영

#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mailto:junsol@junsol.com)